

생통(生通)포럼 Ⅱ(제14차 시민소통마당)

광주 폴리 라운드테이블

Gwangju Folly Round Table

- 일 시 : 2012년 10월 17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광주NGO센터 대강당
- 주 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 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대동문화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 후 원 : 광주광역시

생통(生通)포럼 Ⅱ(제14차 시민소통마당)

광주 폴리 라운드테이블

Gwangju Folly Round Table

- 일 시 : 2012년 10월 17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광주NGO센터 대강당
- 주 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 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대동문화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 후 원 : 광주광역시

<식 순>

<15:00~15:30>

개
회
식

- 인사말 김 상 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 현황발표 천 의 영 (광주 폴리 II 큐레이터)

<15:31~17:30>

라
운
드
테
이
블

사 회: 류재한(전남대 불문학과 교수)

- 조동범(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 전고필(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팀장)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이효원(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정선희(화가)
- 김민정(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업팀장)
- 문형선(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 사무국장)
- 김향득(사진작가)
- 백승현(대동문화재단 사무국장)
- 장희천(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허달용(전, 광주민예총 회장)

<무순>

인 사 말



김상운(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삼복더위에 지쳐 힘들어 한 것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활동하기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광주 폴리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업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도심의 흉물로 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지난 6월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두 단체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는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2차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포럼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광주시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광주시가 답변을 보내오고 그 답변에 대한 재 반박 논평을 발표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행정과 시민사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폴리 사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폴리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의 기획·실행·관리의 일원화 등 정책 제안을 두 단체가 제안한 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개선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2차 폴리 사업은 1차 폴리와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데 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과주의에 얽매어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접근하면 또 다시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과정에 비판과 평가는 겸허히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관·산·학이 광주 발전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끈질기게 설득하고 소통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그 출발을 알리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포럼에 함께 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본 포럼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단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도 깊은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표

광주 폴리 2차 사업 추진 현황

천의영(광주 폴리 II 큐레이터)

Urban Folly II Site Candidates

주제: 인권과 공공공간(human rights and public space)

어반폴리(2012) 대지 예비후보지 선정 :

지난 9월8일 오전 10시 광주비엔날레재단 3층 회의실에서 시민협의회 위원들과 니콜라스 허쉬 총감독, 큐레이터 등의 폴리 후보지에 대한 3차 협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읍성 폴리와 보도로 연계되며 금남로, 푸른길, 광주천, 광주 관문지 등 도시의 축과 초점이 되는 대지를 기획개념과 연계하여 11가지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다.

Phase 1

광주 폴리 2 대지선정 및 결정과정(Urban Folly Site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 _감독의 기획개념(Curatorial Concept)인 **인권과 공공공간 (human rights and public space)**에 대한 광주시의 인문 지리적 공간 배경을 토대로 공공권력의 변화와 인권의 성장사, 그리고 이를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들과의 교류가능성을 토대로 후보지를 선정함.
- _시민협의체와 협의와 기획개념을 기존 2011년의 음성폴리와 보도로 연계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고, 이를 향후 어반폴리가 도시의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출발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되, 부지의 현재조건으로 활용 수 있는 전략적 혈의 지점을 후보지로 선정함.
- _폴리 최종후보지 향후 결정방법은,
 - 1) 총감독, 큐레이터 등 기획자들의 기획의도
 - 2) 폴리관련 시민협의체들과의 협의의견
 - 3) 참여 작가 (건축가 및 아티스트 등)의 대지선정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임.

● 1차 후보지 6곳 선정

1. 등부경찰서(Dongbu police) 인근: 공권력의 상징, 공공공간-ACC 부지, 협의필요
2. ACC앞 분수대 하부지하(under the ACC Plaza Fountain): 공모당선작- Memory Box
3. 광주천(Gwangju River): 도시 녹도 및 공공공간 연계와 미래 폴리와의 잠재적 연계성
4. 광주공원(Gwangju Park):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충돌공간(6.25, 4.19, 5.16, 5.18 등)
5. 지하철 차량(Subway Carriage) : 지하철 객차 1량을 이동폴리로 개조하여 시민과의 접촉확대
6. 경양방죽 (Kyungyang Dike) : 시청의 이전부지, 공권력의 변동과 녹지축소과정 상징

● 2차 후보지 5곳 선정

7. 광주역(Gwangju Train Station): 푸른길 연장선의 최종 종착지, 향후 폴리와의 연계
8. 광주 학생운동회관(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Hall):
1929년 일제와 맞서 싸운 대일 항거정신의 표출지
9. 금남로(Geumnam 5.18 Street):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가로
10. 양동시장(Yangdong Market): 광주천 연계, 도시의 일상성, 민주화 운동 유적
11. 전 적십자 병원(Old Red Cross Hospital): 5.18 사적11호-현 서남대학교 병원, 광주천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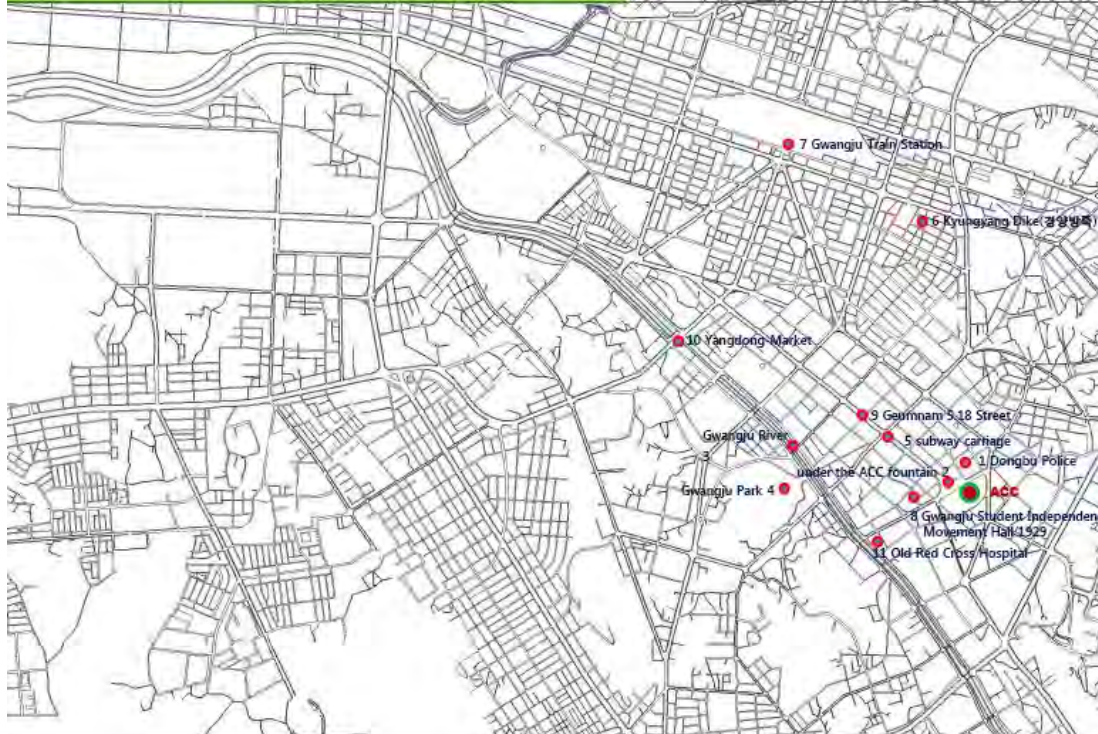
● 시민협의회 3차 보고회 협의시 후보지 추천(09-08-2012)

1. 광주천변
2. 아시아문화전당(ACC) 인근
3. 금남로 주변
4. 양림동 근대 유적지
5. 증심사 주변
6. 광주시 주요관문
7. 푸른길 공원

Phase 1 : Urban Folly Site 11 Candidates : 도시의 축과 초점, 그리고 연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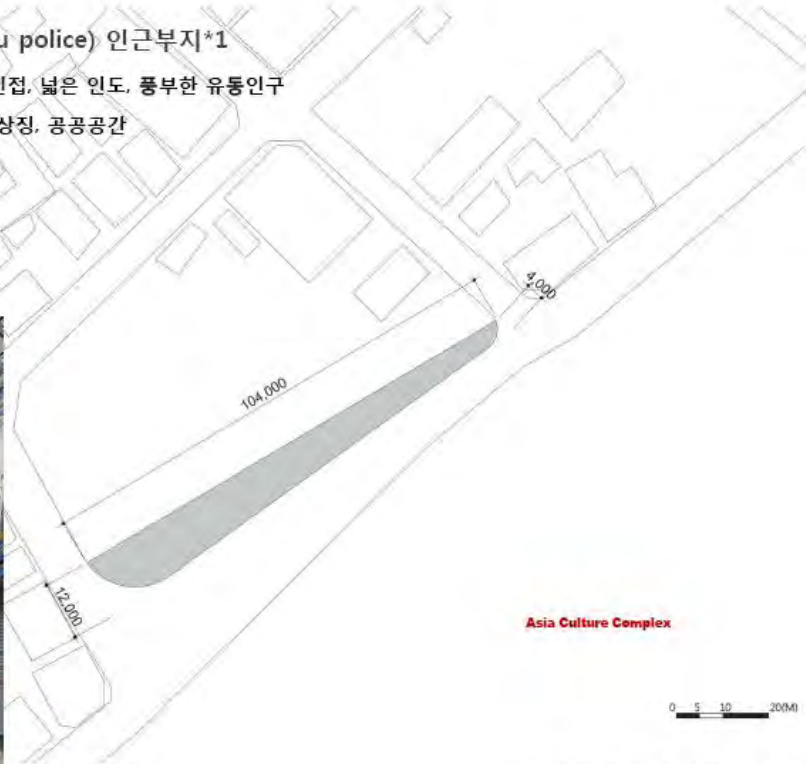
Phase 1 : Urban Folly Site 11 Candidates Mapping



01 동부경찰서(Dongbu police) 인근부지*1

_대상부지 주변환경: ACC 인접, 넓은 인도, 풍부한 유통인구

_대상부지 의미: 공권력의 상징, 공공공간



*1아시아문화전당 소유부지로 ACC와 협의가 필요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02 ACC앞 분수대 하부지하(Under the ACC Plaza Fountain) *1

_대상부지 주변환경

_대상부지 의미: 공모당선작 - 메모리박스(Memory Box)

ACC 인접

민주화 유적지

유통인구 높음

금난로 시작 점



Asia Culture Complex

0 5 10 20(M)

*1. 광주도시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지역임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03 광주천(Gwangju river)

_대상부지 의미: 도시녹도 연계 향후 미래 풀리와 연계 가능성
 _대상부지 주변환경: 산책로, 자전거도로, 광주공원, 사직공원, 양림동 연계

ACC
서석교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04 광주공원(Gwangju Park)

_대상부지 의미: 녹도연계, 시민군 편성유적지와 이데올로기의 충돌(419, 516, 518 등)
 _대상부지 주변환경: 광주천, 자전거 도로, 생태공원

Gwangju Park Gate

0 5 10 20(M)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05 지하철 객차폴리:



06 경양방죽 (Kyungyang Dike) _대상부지 의미: 시청의 이전부지, 공권력의 변동과 도시화와 개발과정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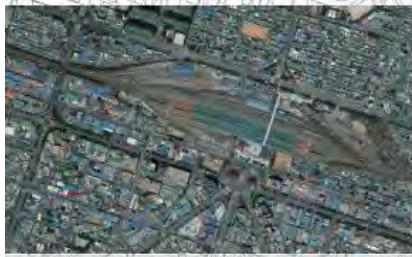
07 광주역(Gwangju Train Station)

대상부지 주변환경

대상부지 의미

역 광장

푸른길 연장선의 최종 종착지, 향후 플리와의 연계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08 광주 학생운동회관(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Hall 1929)

대상부지 주변환경

대상부지 의미

광주천

광주의 대일 항거정신의 표현지

자전거 도로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09 금남로(Geumnam 5.18 street 와 카톨릭 센터)*1

대상부지 주변환경

광주천

자전거 도로

대상부지 의미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가로



*1. 장소가 협소한 단점이 있음, 인도 바닥에 설치 등 고민이 필요함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10 광주천 양동시장(Gwangju river Yangdong-market) : 양유교 주변



대상부지 주변환경

광주천

자전거 도로

대상부지 의미

도시의 일상성 표출, 광주천 연계, 518 민주화 운동 유적지

**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장소

11 전 적십자 병원(Old Red Cross Hospital)

_대상부지 주변환경

광주천



_대상부지 의미

5.18 사적11호-옛 광주적십자병원



라운드테이블(토론)

- 조동범(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 전고필(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팀장)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이효원(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정선희(화가)
- 김민정(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업팀장)
- 문형선(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 사무국장)
- 김향득(사진작가)
- 백승현(대동문화재단 사무국장)
- 장희천(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허달용(전, 광주민예총 회장)

<무순>

하지만.. 광주 폴리를 다시 묻는다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교 교수)

○ 광주 폴리... 문화도시의 장치인가, 도시문화의 인프라인가?

폴리 사업에 부여된 추진체계나 목적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자주 연결되어지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설명하기 용이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체제로서의 논리일 뿐 개별적인 폴리에 이르러서는 보다 섬세한 작동의 논리를 기대하게 되고, 나아가 그 내외의 논리가 서로 관통될 때 행정편의로 추진되는 정치적 목적에서 자유롭고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광주 폴리를 다시 묻는다.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폴리는 “왜 하는 것인가...?” 라는 시민들로부터의 질문에 대해 “문화도시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라는 답은 단순 소박한 질문만큼이나 지나치게 단순 안이했던 것 아닌가? “폴리사업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이 저절로 구해질 것” 혹은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유보적인 답도 2011년의 사업결과로만 보면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설명될 뿐이다. 그 답을 대신하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유의미했던 것이 “폴리이기 때문에....”였고, 최악의 답은 “광주읍성터를 폴리의 입지를 통해 도시역사를 인식시키고자...”이었다.

○“untouchable architecture...?” 혹은 폴리작가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폴리를 건축가에 의한 (예술적 범주의) 작품으로 선을 그으면서 관 발주나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검증되어야 할 절차들이 생략되거나 관용적인 심의만을 거치게 된다. 거기에는 작가성 보장이라는 암묵적 논리가 차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점사업 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는 “공공으로부터 위임된 도시행정업무의 사유화” 태도도 보인다.

폴리는 그 입지에서부터 폴리의 역할과 성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폴리자체의 디자인 검토만으로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개별 폴리의 디

자인에 대해서는 작가성 보장이라는 점 때문에 불가침의 영역에 가깝고 남은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작 폴리에 대해 공공적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막상 논의 가능한 실체 또한 없게 된다.

2011년의 폴리사업에서는 입지결정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2012년에는 그나마 별도 선정과정이 성립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이 과연 공공성의 논의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보다 광주의 지역성을 알지 못한 채 참여하게 될 ‘폴리작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2011년 폴리사업에 대해 지적되었던 “유명건축가로부터 디자인을 받는다”라는 공허함만이 남게 된다.

작가의 작품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하는가?”라는 스탠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지대안이 개별적인 폴리디자인 추진 이전에 결정되면서 폴리사업의 또 다른 문제도 노출한다. 이미 2011년 사업에서도 그러했지만 읍성터나 5.18 민주운동 등이 폴리 입지와 결합하면서 상징성 편집과잉의 페러노이아 현상이 입지와 결부된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2012년의 폴리입지 의도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인문지리적 공간 배경을 토대로 공공권력의 변화와 인권의 성장사
이들 공공공간과 시민들의 교류가능성
기존 2011년의 읍성폴리와 보도로 연계할 수 있는 거리
향후 폴리가 도시의 점 - 선 - 면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현재 주어진 조건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협의 지점...

○ 도시는 변화하는 곳이며 그 속의 삶 또한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고한 질서로 도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_ Rem Koolhaas

동시대의 도시는 더 이상 시각 위주의 조형으로써 그 디자인이 규정되지 않는다. 도시의 건축물과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공간, 기반시설 등을 포괄하여 도시의 진화와 생성의 장으로서 수용하며 사물과 공간 자체의 형태 보다는 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동적 과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성립하는 사건을 아우르는 신경조직으로서 다룬다.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며 무엇을 수행하는가?”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분야 간의 경계를 넘어 건축, 조경, 생태, 문화예술, 제도, 경제 등 도시를 무대로 실천적인 차원의 전략적 테크닉과 전문분야의 협업이 중시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광주 폴리에 있어 그 초기부터 전통적 장르로서 건축이라는 테두리에 스스로를 가두고 시각적 오브제의 폴리로써 도시문화의 미래의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풍요롭게 느껴지고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 답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로부터 나올 수 있다. 광주의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수준과 관리 수준을 접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열악하다. 그 인프라의 열악함 속에서 ‘폴리가 가당키나 한 것이냐?’라는 이 분법적 논리를 내세울 수만은 없다. 다만 스스로 폴리는 그러한 도시의 문화적 무대 만들기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도시의 현실과 시민의 생활에 눈감거나 예술이라는 허울의 울타리를 치지 말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보호막을 걷어내고 일상적 도시 문화적 장소의 개선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심만으로도, 나아가 폴리의 입지에 대해 폴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념과잉으로 포장하지 않고도 사람을 배려하며 도시적 컨텍스트 속에서 작동할 때 시민들은 폴리를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저 폴리로서....

궁금하면 지는 것이다. 폴리에 대해 “왜 필요한 것일까?”라고 묻지 않게 될 때 문화도시 시민임을 알면서도... 광주 폴리를 다시 묻는다.

광주 폴리 단상

전고필(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팀장)

거리의 주인은 그 거리를 이용하는 이들이다. 생활 속에서 거리에 사는 이들과 일상 속에서 그 거리를 활용하는 이가 주인이다. 하지만 현 시대의 거리는 그런 일상속의 이용자들을 타자화 하고 있다. 난데없는 이들이 나타나 거리를 누구 보다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속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한다. 언젠가 연구 때문에 완도 청산도에 머문 적이 있다. 마당에서 뜰방으로 오르는 길이 경사도가 가파른 돌계단이었던 집을 가진 구부정한 할머니가 힘겹게 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야 말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곳이라고 짐작하고 할머니에게 “계단 오르시기 힘드시죠. 요것 평평하게 깔아서 오르시기 좋게 해 드릴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니 “평생 요렇게 살았는데 다른 길 놓으면 더 심들어”라고 일축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랬다. 몸이 움직이는 길을 시각의 길로 바꾼다고 해도 편할 턱이 없는 것이 그분의 삶이고 나는 대책도 없이 도시적 경험과 쓸데없는 이론만 들이 민 것이다. 시골 도로의 직선화도 그랬다. 담양 식영정 앞에서 소쇄원까지 1 KM, 구불구불한 길을 곱게 펴 버렸다. 평생을 구불한 길과 그 길을 가는 차에 길들여진 분들도 찬성한 일이었다. 몸이 익숙한 그 길은 이후 매해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도로가 되었다. 단적인 예이지만 폴리를 보면서 참 불편했다. 각각의 작품이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컨셉은 매우 존중할 만한 일이었지만, 실재 하나 하나를 뜯어보고 머무르며 관찰해보면 아쉬움이 더 했다. 광주읍성의 기억을 잊지 말자는 기념비적 성격과 메마른 도시인의 현대적 삶에 생동감을 부여하겠다는 진정성과 상관없이 현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의 재해석, 시대적 트렌드와는 달리 하드웨어 중심의 미화사업 혹은 작가주의 중심으로 흘러들었지 않은가 싶은 생각 때문이다. 폴리가 공간에 리듬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낮선 풍경으로 시민들에게 민낯을 내밀었을 때도 그렇다. 시민들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서 동력을 받아 움직이는 사업에 대한 반응은 실재 삶에 무감하듯 거리가구도 아닌 전봇대 하나 세워진 것 아닌가 정도로 읽혀지는 모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과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대신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건축학도들의 답사지로서 위상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마치 면죄부처럼 넘어서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 공간에는 시간과 인간의 역사가 점철되고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가장 기본을 다시 돌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멀리 넘어서려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그 한계와 성과도 진실 되게 공론화 하면서 시민의 이해와 요구 속에서 함께 했으면 한다. 더불어 만드는데 중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알찬 프로그램의 운영 속에서 그 역사의 쉼을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한다.

광주 폴리, 다시 이야기하기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보호국장)

광주폴리를 통해 광주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가? 광주폴리는 건축물인가 작품인가? 광주폴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광주폴리는 광주에 필요한 것인가?

지난해 광주폴리를 지켜보면서 드는 의문이다. 도시의 난제인 도시재생을 풀어나가는 매개체로 '폴리'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광주폴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도시 공간에 대해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구도심에 작은 건축물들을 통해 공간을 재매있게 해석하고 공간의 해석에 맞추어 남겨진 공간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폴리를 통해 도시재생을 연결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폴리의 광주라는 거대한 도시공간안에서 폴리가 설치되는 작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도시공간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바탕에는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한 장소와 공간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광주폴리의 설치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주변 공간을 스스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광주폴리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의 활용도 변화됨으로써 침체된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주변 건축물들도 시나브로 변화됨으로써 광주폴리가 도시재생의 작은 구심체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기획이 종합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광주폴리가 설치되는 한곳 한곳에 맞는 공간계획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폴리가 광주시민들의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광주폴리가 계획되고 만들어지고 설치되고 관리 운영되는 과정 하나하나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유됨이 필요하다. 광주에 광주폴리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폴리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광주라는 도시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인식하는 매개로서의 광주폴리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광주시민들

이 광주라는 공간에 대해 함께 해석함으로써 폴리가 설치되는 장소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도시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전문가, 행정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지금은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인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다. 시민들의 관심을 도시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모아지고 기획자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시민들에게 되돌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광주폴리를 매개로 도시가 몇몇 전문가들의 사유(私有)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프로그램 되었으면 한다. 도시와 매일 매일 호흡하는 시민들이 도시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도시를 함께 관리하고 가꾸어나갈 수 있다.

광주 폴리_도시의 조직, 그리고 좋은 디자인

이효원(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광주폴리와 관련하여 지난 토론회에서 폴리를 ‘건축도, 조각(혹은 조형물)도 아닌, 그렇다고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도시 전체를 아우르거나 조직하는 건축적 조형물’이라 하였다.

덧붙여 광주폴리는 1)도시 혹은 대지를 조직하는 요소, 2)일정 공간을 지배하는 조형물(object), 3)그로 말미암은 행위, 혹은 이벤트의 유발자적 역할, 마지막으로 여하한 이유에서건 획득되어야 할 4)Good Design의 산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했다.

이 라운드테이블을 앞두고, 제시된 자료는 광주의 맥락 속에서 찾아낸 소위 ‘의미 있는’, 혹은 ‘좋은’ 자리에 관한 것이다. 이미 이야기된 폴리에 대한 비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결코 그들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편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그 폴리 디자인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를 써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더해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자리를 잡을지 모를 만큼 중요하다 생각되는 자리는 2년 만에 다 폴리가 들어서게 된다. 그것도 몇 개월의 짧은 기획으로 말이다.

의미 있는, 좋은 자리들이 선택되었다고 하자. 이제는 그 자리에 들어설 각 폴리의 문제다. 지난해 폴리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대개 좁은 길 한편에 위치함으로써 각 폴리가 더 복잡하게 했다는 비판에 관하여, 비엔날레 측의 담당자는 ‘폴리가 없었어도 이미 복잡한 곳’이라 했다. 사실 그렇다. 그렇다면, 이미 복잡한 곳에 복잡한 절차와 행사를 거쳐 복잡하게 하는 물건 하나를 더 ‘없는’ 것은 단연코 반대다. 섭외된 훌륭한 작가들은 자신의 폴리로 하여 확실히 개선된 것을 보여야 한다. 원래 그런 곳이니 어쩔 수 없다든지, 혹은 돈이나 시간을 따질 것이라면, 그건 아니다. 잘 모르면 가만 두는 것도 지혜다.

이번 폴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도로나 보아야 할 광주의 의미 있는 장소들이 이번 폴리를 통해 시민에 의해 인식되고, 광주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어수선하고 아무

런 의미 없던 길가의 장소가 폴리로 하여 사람들을 멈춰 서게 하고, 머물게 하며, 그 디자인에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단순하며, 별 것 없다.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건 도시를 새롭게 조직해내는 과정은 누군가에 의해 계속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광주도 그 수단을 폴리로 선택했으며, 어쩔 수 없이 폴리의 축적이 광주의 역사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중한 현실이다.

광주 폴리 라운드테이블 단상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A.노이마이어는 『현대미술의 의미를 찾아서』란 책에서 당대 예술에 대해 회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동정 받아 마땅한 일이며, 그 시대 예술을 절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대의 맥박을 모르는 채 지나치는 일이라고 했다. 들라크르와가 “예술이란 대중의 시간감각으로 재기에는 너무도 빨리 가는 시계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 광주폴리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은 아주 느리게 가는 시계이거나, 고장 난 시계라는 열패감에 사로잡힌다. 현재 광주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건축가 10여명 작품이 광주 옛 성터를 따라 의미 있다고 여기는 열한 곳에 광주폴리가 세워져있다. 열패감에 빠진 이유는 작품에 감동하기보다는 왜 여기에 세웠지, 무엇을 의미하지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기 때문이다.

작품을 만들어낸 능력이나 진지함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무시할만한 예술적 소양을 갖추지도 못했다. 또 하나 고백하건데 열한 개 작품을 다 보지도 못했다. 일부 작품만을 보았고, 폴리라는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고 이해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광주폴리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 때문에 어쩌면 더 객관적으로 작품을 이야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폴리? 철재를 이용하여 작은 구조물을 만들거나 독특한 건물을 큰 정원이나 공원에 장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고 하며, 현대 폴리의미는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곳에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라 한다. 프랑스 파빌레뜨 공원에 설치하면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그곳은 원래 도살장으로 이용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곳인데 과학 테마파크로 환골탈태한 것이다. 광주폴리는 어떤 의미로 도심 공간에 존재할까?

휴식, 커뮤니티, 전시, 공연 등을 통해 광주 도심의 옛 명성을 찾아보려는 의도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들은 ‘공존, 공생이란 각자도생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 말뚝처럼 있으면서 공존을 향한 소통은 언제 왜, 어떤 지점에서 생기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일으키기만 한다.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작가 작품이라 하지만 광주라는 공간을, 역사를, 사람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제2차 광주폴리에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작품들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문화도시에 걸맞은, 인권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광주 시민이 공감하고 그래서 애정을 쏟는 광주다운 작품을 기대한다.

광주 폴리를 생각하며

정선희(화가)

지금까지 세워진 광주의 폴리들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가? 아직은 나에게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폴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복잡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가져 보기도 한다.

‘건축학 개론’이란 영화가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언어가 주는 느낌이, 거대한 구조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 같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시민의 건축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영화를 보면서 추억을 건축에 담아내고자 하는 장면이 특히 공감이 갔다. 건물을 단지 건축 구조물로만 본다면 과거의 낡은 공간으로 보여 지는 장소는 볼 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추억이 숨 쉬고 있는 장소로 인식된다면, 그 공간은 또 다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폴리가 세워진 주변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공감하면서 애정을 품어 줬을 때 폴리는 주변과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명세를 앞세운 문화폭력의 폴리가 아니라, 배려가 있고 주변공간을 깊고 폭넓게 해석하여 만들어진 폴리가 아니라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물로 인식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워진 광주의 폴리들은 너무나 조급하게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짧은 시간에 문화도시를 벼락공부 하듯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우스운 생각마저 들고 있다. 산발 적으로 갑작스럽게 채워 넣었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될까? 아직 정이 들기도 전에, 거부감이 먼저 밀려오는 느낌을 달래기도 전에, 또다시 채우기에 열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에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 소중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덧붙여 본다. 현 세대에 폴리를 논하고, 다음 세대에 폴리가 하나, 둘 세워져도 시간의 흐름을 보채지 않고 서서히 스며들어 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채우기보다 비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비움의 가치가 채움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로 자라나길 기대 한다. 단지 이 말이 언어적 교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양식으로 우리 곁에서 자라나고 있기를 빌어본다.

2차 광주 폴리 단상

김민정(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업팀장)

1차 폴리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한 시민포럼(6.26)의 결과로 광주시에 제안한 내용들 중 일부가 현재 기획되고 있는 2차 폴리에 대한 사업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의 일원화 제안으로 현재 광주비엔날레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각계 전문가와 행정, 시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주폴리 사업평가단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광주비엔날레에서 지난 8월 7일 2차 폴리를 위한 장소선정, 운영방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광주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광주폴리의 주된 논의쟁점은 “소통의 부재”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협의회를 구성되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목적대로 다소 늦어지더라도 광주폴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1차 폴리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함께 2차 폴리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하고, 주관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의영 큐레이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차 폴리의 경우에는 나름(?) 부족하지만 시민과의 소통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아마추어 작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광주폴리의 현상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당선작 <메모리박스>가 광주폴리로 설치된다는 점, 시민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폴리의 최종후보지를 검토한 점, 시민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지하철 차량에 이동폴리로 개조하여 제작하려는 의도 등에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한 접근으로 광주 전체를 보고 기획되어지는 광주폴리가 만들어진다면 광주폴리가 시민 곁으로 좀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업에서 시민참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점은 시민과의 공감대는 꼭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차 폴리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광주시민이 사랑하지 않는 광주폴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광주폴리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관련단체, 행정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피드백하여 보완해야 하고, 이후 광주폴리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진행할 때는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소중한 의견들이 꼭 검토되고 반영되어 광주시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2차 광주폴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광주 폴리의 초심을 찾아서

문형선(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 사무국장)

광주폴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도심재생, 광주 읍성 복원, 푸른길 공원, 5.18의 정신, 사직 공원 등 광주의 랜드마크 형성에 힘써오고 있다.

폴리란 자연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공들여 지은 건물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도시의 랜드마크 형성을 위한 보조 역할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광주의 폴리는 작가 개인의 위상을 알리는 환경조형물로 마치 지역의 대표작처럼 심심한 반응을 보이거나 시민과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구조물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폴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미 있는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 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적 풍경 안에 충분한 공간 확보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그 대안으로 요즘 문화예술계에 자주 등장하는 융복합이란 단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융복합이란 융합과 복합이 합쳐진 말로 융합이란 녹아서 합쳐지는 것, 복합이란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에는 사실 그보다 다양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단순히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이한 지식이 만나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 현실을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듯이 지식과 경험의 대통합을 의미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융복합적인 폴리제작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건축가, 전문가도 좋지만 지역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기획자, 미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시민 등이 공청회를 통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담아내며, 도시 공간성과 공공성을 지니면서 광주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구현하고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문화중심도시에 걸 맞는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또한 구 도청 중심이 아닌 문화적 접촉이 적은 곳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금 씩 도심 재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하는 부서(공원, 관광, 도심재생 등)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협의 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차 폴리 추진에 관한 단상

김향득(사진 작가)

1차 폴리는 지역주민 과 시민사회 관계전문가 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 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역 효과가 나타났다

그 예로 대성학원 인근에 있는 잠망경 과 정자의 경우 보행권 안전권 확보 가 전혀 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나타난 지역이며 현재 인근에 장기간 공사 중에 있는데 안전요원 미 비치로 인한 인도 보행권 이 위협받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 읍성 은 현재 오전 과 오후 가 차이가 많이 난다 오전에는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해 광주 읍성 위치도가 어느 정도 안정성 을 확보하지만 그래도 차량 통행 과 주차로 인한 접근성이 부적합하고 오후에는 통행량 이 빈번한 가운데 읍성 위치에서 주차 나 행사인 들이 빈번한 왕래로 인한 읍성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폴리 역시 지역상인 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은행나무를 가두어 두고 있어 환경침해 와 함께 상인들의 상권 침해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원문터 와 서운문 제등 이곳은 1980년 당시 광주 mbc 문화방송자리가 위치해 있던 자리로 5.18 사적지 한곳으로 분류되어 현재 5.18 사적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서원문 과 서원문제등 설치로 5.18 사적지가 잘 보이지 않고 서운문제등이 무엇인지 시민들도 잘 인지가 되고 있지 않다.

폴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중요한 역사적 항쟁의 공간이기도 해 보호해야 될 중요한 곳이다 사적지 훼손을 해가며 어반폴리를 진행시켜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차 폴리에서는 첫째 안내게시판에 관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안내게시판을 새롭게 단장을 한 폴리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부분 즉, 지역 상권, 보행권, 환경권, 주민소통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2차 폴리 지역 선정 배경 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동부경찰서 또는 경찰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또한 광주역도 코레일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관련 기관과 협조가 필요하고 상권침해 환경 파괴 보행권 인권에 관한 사항을 생각해야 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폴리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나올 수가 있으므로 폴리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Urban Folly 2 계획에 대한 제안

백승현(대동문화재단 사무국장)

Urban Folly 2는 주제가 ‘인권과 공공 공간’으로, 기존 1차 폴리들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면서 금남로, 푸른길, 광주천, 광주 관문지 등의 ‘전략적 혈의 지점’ 11곳을 전략적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5·18 사적지와 광주학생운동회관 등 역사·인권 현장을 폴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1차 폴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폴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제안합니다.

1) 후보지의 문제 : ‘인권과 공공 공간’이라는 주제가 후보지 선정에 선명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부 경찰서’-공권력의 상징, ‘광주학생운동회관’-대일 항거 표출지, ‘경양방죽’- 도시화의 상징 후보지는 주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 공간(양림동-근대 문화의 출발지, 광주제일고등학교·수피아중고등학교·전남여고-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광주고등학교, 사직공원-사직단, 예술의 거리-현대 미술 문화, 학동 배고픈다리 또는 연진회-무등산 불교문화와 남종화, 남광주 시장-도시화의 상징, 조선대학교 입구-근대 대학 교육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묶을 것인지, 인권 공간이라는 주제로 묶어 후보지를 선정할 것인지 정체성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정체성과 역사성이 장소와 잘 조화되어 추진된다는 사업 취지와 배경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겠습니까.

2) 폴리 사업 집행에 대해

- 1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평가를 토대로 2차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시민 공감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 사업의 평가와 진단은 일단 수용된 것으로 하고 2차 사업을 진행한다면 순조로운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시민협의체 위원들과 총감독, 큐레이터 등이 2차 폴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민협의체의 확대를 요청한다. 폴리 주변 상가와 거주 주민, 관련 시민단체의 위원들을 확대 포함시켜 확대된 시민협의체의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도록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다.

- 대상지 선정과 설계 집행 과정에 공청회 등 충분한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민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제안한다.

2) 폴리 사업의 공감을 위해

- 2차 폴리 사업의 경우 시민·작가·총감독 공동 참여 폴리 작품이 20~30%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 2차 폴리 사업의 경우 지역 작가가 20~30%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1차 폴리 방식처럼 스타 마케팅 방식으로 외국, 외지 작가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추진되었던 사업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 1차 폴리 사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였던 도시 공간의 재활용, 시민 이용률 확대라는 측면에 맞추어 2차 폴리 사업이 진행되어 2차 폴리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도시 활력도 높이는 실용적인 디자인과 장소성이 융합된 폴리 사업이 되어야 한다.

- 1차, 2차 폴리 사업을 건립하고 난 뒤의 활용 방안과 관광 자원화 방안,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 계획도 반드시 계획 단계에서 중요하고 상세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1차, 2차 폴리 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의 광주시의 관광자원화 방안, 폴리 사업을 연계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광주 폴리 단상

장희천(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1. 주제 설정

- 감독이 설정한 주제
[공공권력의 변화와 인권의 성장사]
- 아웃사이더의 생각
주제를 설정한 것은 좋으나 후보지 설정에서 문제

2. 후보지 설정

- 후보지 설정 원칙
광주시의 인문 지리적 공간배경을 토대로
공공권력의 변화(1-1)와 인권의 성장사(1-2)
이들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들과의 교류가능성(2-1)을 토대로 후보지를
선정함
시민협의체의 협의와 기획개념을 기존 2011년의 읍성폴리와 보도로
연계할 수 있는 거리(2-2)를 고려하고,
향후 어반 폴리가 도시의 접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출발 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되,
부지의 현재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혈의 지점을 후보지로
선정함.
- 아웃사이더의 생각
후보지 선정시 1차적으로 “공간적인 인접”(앞의 후보지 선정원칙(2)참
조)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1차 선정된 대상지에서 “공공권력
의 변화와 인권의 성장사” (후보지선정원칙(1)참조) 라는 주제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됨
후보지들은 설정개념인 <공공권력의 변화>와 <인권의 성장사>를 구현
해 주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짐 (= 주제와 후보지 간 괴리)
- 설정 개념의 Key Word는 공공권력과 인권인데, 후보지에서 <공공권력이 어떻게 변
화되고 있는가?> 와 <인권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읽어내기 어려움

주제가 너무 거대하다는 점, 이 주제를 아우를 대상지가 좀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음
 결국 후보지의 “장소적 의미”가 확대 해석되거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함
 - 기타: 기본개념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공권력’, ‘공공공간’, ‘변화’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여기서 사용하는 개념 정의 필요

감독의 기획 개념		아웃사이더의 생각	
후보지	개념 [공권력의 변화와 인권의 성장사]	아웃사이더의 생각	공권력 인권
(1)동부경찰서	공권력의 상징, 공공공간	동부경찰서에서 공권력이 어떻게 어디로 변화되었는가? 과연 동부경찰서에 얽힌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공공공간이라는 의미는 ? 동부경찰서를 공공공간으로 본다면 동부경찰서가 이전하고 광장 등이 조성된다는 의미인가? 이 공간이 동부경찰서로 계속 사용된다면 주제에서 제시한 “시민들과의 교류”는 가능한가?	○
(2)ACC앞 분수대 하부지하	당 선 작 - 메모리 박스 (Memory Box)	518 공간이 지하로 들어갔구나	○
(3)광주천	도시녹도 및 공공공간 연계와 미래 폴리와의 잠재적 연계성	공공공간 맞춤	
(4)광주공원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충돌공간 (6.25, 4.19, 5.16, 5.18 등)	광주공원은 공공공간이 맞춤 그러나 현충탑, 419기념탑 등이 있다고 해서 이 장소를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충돌된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 인근의 교회는 3.1운동과 얽혀있는 공간이라는 것.	○
(5)지하철차량	지하철객차 1량을 이동 폴리으로 개조하여 시민과의 접촉확대	왜 광주지하철 객차가 광주의 민주화 등의 역사자료로 등장하는가. 전체 주제에서 벗어남	?
(6)경양방죽	시청의 이전부지, 공권력의 변동과 도시화와 녹지축소 과정 상징	“공권력”의 “변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어의 의미부터 재고 필요 “광주시청”을 공권력이라고 보고 광주시청이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상무지구로 “공간 이동”한 것을 공권력의 변화라고 보는가? 둘째, 시청이라는 공공공간이 자본공간(상업시설인 마트)으로 치환된 것을 공권력의 변화로 보는가? 그 정도라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
(7)광주역	푸른길 연장선의 최종 종착지, 향후 폴리와의 연계	양동시장과 적십자병원이 518 사적이라면 광주역도 5.18 사적인데...	?
(8)광주학생운동 회관	1929년 일제와 맞서 싸운 대일 항거정신의 표출지	광주학생회관이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을 학생운동의 표출지는 발원지로 간주하는 것은 재검토 필요 학생회관은 과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곳이 아니라 빈공간에 현 건물이 조성 과거에 어떤 장소였는가는 자료를 뒤져 밝혀내야	○
(9)금남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가로	기조성된 금남공원과의 중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10)양동시장	광주천연계, 도시의 일상성, 민주화운동 유적		?
(11)전 적십자병원	5.18 사적11호-현 서남대학교병원, 광주천연계	인근 전남대병원에 더 많은 부상자들이 실려왔지 않나?	○

3. 아웃사이더의 제안

○ 개념정립 보고서를 만들자

조형가/외부인에게 의미를 대충 추정적으로 잡고 장식으로서의 조형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분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광주의 예술가를 중심으로 하자

정말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예향이라는 지부심
이 있다면 내부의 인재들에게 일을 맡기자
외국의 또는 서울의 누가 했다는 자랑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

○ 주제를 정해서 하자

1차 읍성폴리에서는 “읍성”이라는 주제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폴리”라는
이름 때문에 주제가 배제된 조형물이 남았다. 읍성이라는 주제를 인식
하고 일을 추진했다면, 광주 읍성을 형태적으로 나타내는 일관된 랜드마크
크라도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차라리 역사적 의미를 기록한
표지판이나 의미가 결부된 조형물이 등)

○ 폴리라는 명칭은 그만 쓰자

폴리는 무의미/무기능의 조형물을 의미. 광주의 공간적 여건이나 역사를
상징하는 이번 주제는 장식으로서의 조형물을 받아들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 왜 무엇을 위해 했는가 역사적 근원을 찾아본다. 조경전문가에게 물어도
본다

- 17세기, 영국, 황량한 벌판 등등에 심심함을 죽이려는 침경물,
기능= 경관의 심심함을 죽이려는

1차 폴리를 돌아보자. 광주의 폴리는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음

Urban Folly → Urban Landmark

○ 꾸미기보다는 삶터, “생활공간” 조성이 우선

60년대 아마추어 예술가 가족

- 전세 상하방에 7식구

- 월부전집물, 새장, 액자 VS 앓은뱅이책상, 통학용자전거

- 무엇이 시급했는가?

생활공간

- 광주의 폴리는 시급한가?

-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동네 버스정류장+ 동사무소+ 어린이집+ 우체국 등이 함께 구비된 어떤 공간 VS 구시청 사거리/충장로/금남로의 어떤 폴리

4. 후기

○ 개인적으로 이 일은 즐겁지가 않다. 그냥 답답하다. 뒤처리하는 것은 이제 하고 싶지 않다.

헛주먹, 헛손질하고 있다는 생각.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멀리는 행정의 사무관리 시스템부터 가까이는 진급시스템까지. 담당자는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일을 하고, 전혀 모른 채로도 한다.

중~고등학교 6년을 금남로와 충장로를 관통하여 통학했다. 원래부터 길과 건물은 그 자리에 있었고, 도시공간이 변화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현상의 하나인 줄 알았다. 추호도 의심을 갖지 않았었다.

지금은 왜 오류만이 보이는가. 식자우환인가. 지금, 오늘, 우리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수천 만 번의 물방울이 깨져서 바위를 뚫는다(달마)는 말을 떠올린다. 그러나 위로가, 힘이 되지 않는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생통(生通)포럼 II (제14차 시민소통마당) 자료집<비매품>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김상윤
펴내일 : 2012년 10월 17일(목)
펴낸곳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이 자료집은 2012년도 광주광역시 빛고을사랑운동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1-5 삼호별관 2층
전화 : 062)234-2727 / 팩스 : 062)234-2728
이메일 : kccn21@hanmail.net / 카페 : cafe.daum.net/kccn21